

발행일 : 2011년 12월 15일(매월 1회 발행)

※후쿠시마현은 복귀와 부흥을 향해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후쿠시마현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이 정보지의 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판은 당 협회 HP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재) 자치체국제화협회 조성사업】



후쿠시마의 풍경



출하가 시작된 후지사과 (다테시 2011.11.20 촬영)

사과는 복숭아와 함께 후쿠시마현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가장자리에 꿀이 가득 들어있는 후지 사과는 그 맛과 향기, 크기에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밝힌 일루미네이션 (후쿠시마시 2011.12.1촬영)

연말연시의 풍물시인 후쿠시마 겨울 일루미네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점가 가로수에 장식된 색색의 불빛에는 부흥을 향한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칠레의 유치원에서 보내온 메시지 (후쿠시마시 2011.12.9 촬영)

예전에 AFS 교환학생으로서 후쿠시마현내의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칠레출신의 웨리페씨가 모국의 유치원에서 보내온 후쿠시마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메바에유치원에 전달하였습니다.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

우류 켄에 (기타카타시 남성)

기타카타는 “창고와 라면의 고장”으로서 관광업이 큰 산업입니다. 연간 500 교에 이르는 학교가 수학여행으로 방문하였었지만,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9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카타의 환경방사능 측정치는 낮지만, 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관광버스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고향 친구 대작전”이란 이름을 내걸고 그림엽서를 전 세대에 배부하여 친척과 지인들에게 기타카타시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필하고자 전 시민들이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원전사고의 수습선언이 나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장기간이 될 거라는 것은 각오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걱정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힘을 냅시다. “후쿠시마는 한마음”입니다.

간노 마사미 (나혼마쓰시 필리핀출신 여성)

지진 직후에는 나미에초로부터 많은 분들이 피난을 와서 이웃과 함께 피난소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지진과 방사선은 정말 무서웠지만, 이번 지진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저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아이들 밥은 어른들 것과는 따로 다른 현에서 생산한 쌀로 만들고 있어서 매번 2 개의 밥솥으로 밥을 짓고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과 싸우고 있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양한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메구미 (후쿠시마시 여성)

저는 니가타현 출신으로 나고야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4월부터 임야청(林野庁) 채용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진 전날인 3월 10일에 근무처가 후쿠시마시라는 통지를 받았고, 그 직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교통과 통신이 단절되어 있어서 정말로 4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방사선에 관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해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등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등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지금 생활에 불만은 없습니다. 후쿠시마는 쇼핑도 편리하고 전원풍경도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2년 간은 후쿠시마에서 생활할 예정이므로 후쿠시마 생활을 더욱 즐기려고 합니다.

짱 쉐 (후쿠시마시 중국출신 남성)

시내에서 중국요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에는 개장하고 1년도 안된 가게 안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정전과 단수로 영업도 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을지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자주 찾아주시던 손님들이 서서히 돌아와 지금은 이력저력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해 온 것이 손님들과의 신뢰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크나큰 재산입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관광업은 큰 타격을 받았고, 저처럼 요리를 만드는 여관의 주방장들 가운데도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부흥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